

16. 중공업 소속 근로자에서 발생한 신장암,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

성별	남성	나이	만 63세	직종	선박건조 및 수리업 종사자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는 □중공업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1976년 2월부터 1985년 8월까지 타사업장에서도 용접업무를 약 8년 9개월간 수행하여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용접 업무만 약 42년간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2020년 12월경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시행한 MRI에서 뼈 전이 소견 보여 큰 병원 권유받았다. 2021년 1월 12일 ◇대학병원을 방문하였으며 2021년 1월 19일에 시행한 CT에서 왼쪽 신장에 약 3.2cm 의 종괴가 발견되었다. 이에 63세가 되던 2021년 2월 1일 초음파 유도 신장조직검사를 하여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,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최종 진단되었다.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흠, 카드뮴, 석면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0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1985년 9월 입사하여 2018년 12월까지 약 33년 3개월 간 □중공업 선형의장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. 또 1976년 2월부터 1985년 8월까지 타사업장에서도 용접업무를 약 8년 9개월간 수행하여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용접업무만 약 42년간 수행하였다. 근로자가 근무한 선형의장부의 작업공정은 블록입고 → 용접취부 → 사상 → 부재운반으로 나뉘고 근로자의 공정은 용접취부에 해당되었다. 용접취부 공정은 선형 공정에서 제작된 블록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근로자는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흠 뿐 아니라 석면, 아연 합금 및 페인트가 도색된 모재 용접 시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. 근로자는 주 6일, 주간근무로 08:00-17:00(점심시간 12:00-13:00)까지 근무하였고 주 2회, 19시까지 연장 근무하였으며 가끔 밤 12시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. 근로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였고 환기팬, 자바라 등이 가동되었으나 넓은 선박 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환기팬 등의 수가 부족하여 사용을 하지 못 할 경우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업무 후 마스크를 벗으면 코 안이 까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. 선박 내와 선박 외 모두 용접하였는데 비율은 8:2로 실내 작업이 많았다고 하며 선박 종류는 유조선, 가스운반선 등 종류에 상관없이 제조되는 모든 선박 내·외 배관 용접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압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20년 12월경 허리 통증이 심해져 시행한 MRI에서 뼈 전이 소견 보여 큰 병원 권유받았다. 2021년 1월 12일 ◇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요추체 이상음영으로 2021년 1월 14일 혈액종양내과로 진료 의뢰되었다. 2021년 1월 19일에 시행한 CT에서 왼쪽 신장에 약 3.2cm 의 종괴가 발견되었다. 이에 63세가 되던 2021년 2월 1일 초음파 유도 신장조직 검사를 하여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,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로 최종 진단되었다. 즉, 신장암의 다발성 전이 상태로 특히 척추뼈 전이로 인한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다리의 통증 및 저림감, 근력소실이 있다. 고식적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 받았고 현재 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이다. 근로자는 2017년 4월 13일부터 2019년 4월 9일까지 방광의 양성신생물로 △대학병원에서 7회 수진 기록이 있다. 근로자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로 220일간 요양한 이력이 있다(장해 12급). 2013년 요관의 결석으로 치료받았다. 흡연은 질환 진단시까지 약 35년간 하루 20개비를 피웠으며 음주는 매일 소주 1병을 마셨다. 근로자는 키는 170.0 cm에 몸무게는 58.0 kg 으로 체질량지수는 20.1 kg/m² 이었다. 가족력은 없었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58년생)는 만 63세가 되던 2021년 2월 1일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,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1985년 9월 □중공업에 입사하여 약 33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면 약 42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.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용접흡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. 근로자는 약 42년간 용접흡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접흡은 신장암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. 끝.